

카카오뱅크, 금융시장 돌풍 '주목'

금융권, "인터넷은행 성장하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선행돼야"

카카오뱅크가 지난 27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돌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금융권은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와 연계된 만큼 폭발력이 케이뱅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이 장기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계좌 개설을 비롯한 은행 영업에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은행 창구에 갈 필요 없이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강점인 편의성, 간편성을 살리기 위해 예금, 대출 등 서비스 전반을 이용자가 있는 곳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기증에 사용하던 다른 은행 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를 추출해 활용하는 스캐링 방식을 도입해 재직 증명서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봉의 최대 1.6배,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금·정기예금의 경우 연 2.0%(1년 만기)이고 300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대출(일명 '비상금대출')은 최대 3.5%다. 한도가 1억5000만원인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2.8%다.

국의 송금 수수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22개국의 경우 송금액이 미화 환산 기준 5000달러 이하이면 5000원, 5000달러 초과이면 1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시중은행 창구의 10분의 1 수준

으로 잡았다.

또 국내 은행 이체 수수료, 주요 ATM(국내 11만4,000대) 수수료, 알뜰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고 체크 카드 이용자에게 사용액의 0.2%(평일) 또는 0.4%(주말, 공휴일)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아울러 카카오뱅크에 친구로 등록된 이들에게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결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한 서비스도 실시한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함께 은행권에 혁신의 바람을 불고 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최우선 과제는 은산분리 완화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 업자본은 은행 자본을 10%까지만 보

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사금'로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추후 은행법을 개정, 예외적으로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 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KT나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최대 주주가 돼 인터넷은행을 이끌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회에 산업자본의 의결권 자본을 50%까지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받 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안 등이 상정됐으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신보, 보증공급 2조원 '돌파'

지역밀착·특성화된 보증상품 개발·공격적 지원 펼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총 보증공급 2조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보증지원 실적은 행북한 강소기업 만들기 특례보증, 시·군 특례보증, 금융회사 협약보증 등 지역밀착 및 특성화된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공격적 지원을 펼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상반기 누계지원 건수 및 금액을 보면 전북도 정책자금 5,440건, 1,125억원, 시·군 정책자금 2,612건, 446억원, 정부 정책자금 2만 426건, 4,112억원, 금융기관 협약자금 5만 8,578건, 6,801억원, 햇살론 1만 459건, 949억원 등 총 9만 7,515건, 1조 3,433억원의 보증이 재단에 의해 공급됐다.

특히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원 건수 및 금액은 5만 7,465건, 9,451억원으로 총 지원 건수의 43%, 지원액의 47%에 달해 공격 신용보증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신보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4,000억원의 보증 공급 목표를 세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계획이 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선업 지원 특례 보증', '사장님 氣살리기 특례보증' 등 전북도의 경제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보증공급 2조원 돌파는 전북신보가 명실상부한 정책보증기관으로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신용보증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자금으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글로벌 참가자 모집

경진원, 내달 11일까지... 해외 진출 관련 사회서비스·사업 확장성·실행 가능성 중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2017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글로벌 부문에 예비창업자에서 기창업자로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해 8월 1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전북도관할 당국 경진원은 권역 지원 기관으로 도내 참신한 소셜벤처 아이디어 인재들을 발굴해 나아가고 있다.

올해 글로벌 부문 모집은 기존 참가 자격이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모

집했으나 추가 선발은 지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기창업자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자들도 신청대상으로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추가 모집인 글로벌 부문은 국제 개발협력 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혹은 해외 진출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아이디어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와 사업 확장성 및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해 평가에 따라 수상할 예정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추가 모집에 있어 참가 자격이 확대된 만큼 도내 소셜 미션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창업자들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9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창의 아이디어(청소년·대학(원)생) 부문과 창업연계 아이디어(일반창업·글로벌)부문을 모집자를 모집해 3단계 심사(예선-광역대회-전국대회)로 총 33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해 총 2억원의 상금과 상장(국무총

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대회 진출팀 대상으로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참여자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문 멘토링과 문제 해결형 멘토링 캠프를 운영해 창업 연계에 보다 전문성이 있도록 체계화할 계획이 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 방법은 대회 홈페이지(www.2017svc.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jbsa.kr/)나 전화(063-711-2112)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농진청, KOPIA 아시아대륙 소장단 협의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지난 2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소재 농업생산과학센터에서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아시아대륙 소장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각 센터에서 협력하는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아시아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 방향과 내용을 논의했다.

아시아 대륙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이하, 코피아)은 2009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에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센터를, 스리랑카(2011년), 태국(2012년), 몽골(2014년), 라오스(2016) 센터까지 총 9개 센터를 설치했다.

코피아에서는 각 나라 농업현장에 우수 품종과 재배법을 적용하는 등 농업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지원에서 시작해 대단위 농가가 참여하는 코피아(KOPIA) 고소득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각 나라에서 농가 소득증대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나라 소농 소득증대와 정부개발원조(ODA)사업을 하는 다른 부처, 민간과 적극 협력해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재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농촌진흥청 이규성 기술협력국장은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방향인 투명성, 체계성, 효과성을 강화하도록 다른 부처, 민간과 함께 아시아 대륙 농업발전, 한국 농자재산업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 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공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8일, 도내 2,175개 전문건설업체(등록업종수 3,459개)에 대한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3.5%에서 3.4%로, 30억 미만 10억

이상은 55.7%에서 53.8%로 감소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유)삼신기업이 차지했고, (유)원진알미늄이 2위를, (주)해동지앤에이의 토공사업, 금전기업(주)의 철강재설치공사업, 형제건설(주)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각각 3, 4, 5위를 차지했다.

/인재용 기자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36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97억원 규모, 총 36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김제시 금구면 소재 임야와 군산시

나운동 소재 판매시설, 부안군 부안읍 소재 여관 등이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 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8월 3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